vol.55

ESMOD SEOUL

information

ECOLE SUPERIEURE
DES ARTS ET TECHNIQUES
DE LA MODE
DEPUIS 1841

03 ESMOD SEOUL PROMOTION 2020
16 ESMODIANS
18 ESMOD SEOUL NEWS

CONTENTS

03 > PROMOTION 2020
제30회 졸업작품 발표회

04 > PROMOTION 2020
제30회 졸업작품 여성복 컬렉션

08 > PROMOTION 2020
제30회 졸업작품 남성복 컬렉션

12 > PROMOTION 2020
제30회 졸업작품 아동복 컬렉션

13 > PROMOTION 2020
제30회 졸업작품 심사평

14 > ESMOD NEWS
에스모드 소식

16 > ESMODIANS
에스모드 동문 소식

18 > ESMOD SEOUL NEWS
에스모드 서울 소식

* 위 표지 사진은 에스모드 서울 30기 김봉균 졸업생의 졸업작품 컬렉션 입니다. 모델 ALIYU MOHAMMED YAHAYA

에스모드 서울 패션디자인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06 우) 06028
TEL (02) 511-7471~3
발행 편집인 / 박윤정, 고은경 **인쇄** / 오베이션
창간 / 1992년 5월 7일 **등록번호** / 서울 사-1576
연 2회간 / 비매품 **55호 발행** / 2021년 2월 26일

2021년 SUMMER CLASS 안내

에스모드 서울 SUMMER CLASS는 에스모드 3년 정규 과정 이외에 에스모드 서울의 유일한 단기 과정으로 여름방학에만 진행되며 프랑스 패션디자인 교육인 에스모드 커리큘럼을 가장 집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에스모드 서울 교수진의 개별지도로 이루어지는 본 특강은 패션 디자인 분야로의 진로모색, 깊이 있는 심화학습, 실무교육을 통한 직업역량 강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에스모드 스틸리즘 A	7/12 ~ 7/23	월 ~ 금 (2주, 40시간)	09:00 ~ 13:00
에스모드 모델리즘 A	7/12 ~ 7/23	월 ~ 금 (2주, 40시간)	14:00 ~ 18:00
에스모드 스틸리즘 B	7/12 ~ 7/23	월 ~ 금 (2주, 40시간)	14:00 ~ 18:00
에스모드 모델리즘 B	7/12 ~ 7/23	월 ~ 금 (2주, 40시간)	09:00 ~ 13:00

* 모든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

에스모드 스틸리즘, 모델리즘

· 패션 디자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관심 있는 자
· 에스모드 패션디자인/패턴디자인 커리큘럼을 경험해보고 싶은 자
· 에스모드 서울 편/입학을 원하는 자
(스틸리즘, 모델리즘 동시과정 수강생에 한함)

접수 및 등록절차

2021년 5월 31일(월)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www.esmod.co.kr)에서 선착순 접수

모집인원

각 과정당 25명 내외
* 등록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특전

SUMMER CLASS 수료증 수여
스틸리즘, 모델리즘 동시수강 시 에스모드 서울 1학년 2학기 편입시험 응시자격 부여

할인혜택

스틸리즘, 모델리즘 동시수강 시 10% 할인

문의

02.511.7471~3 (내선 103)
admission@esmod.co.kr
www.esmod.co.kr
카카오톡 채널 : 에스모드서울

입학 안내

에스모드 서울은 패션디자인(스틸리즘)과 패턴디자인(모델리즘)을 병행하여 교육하는 3년제 패션디자인 교육기관으로 실무교육과 함께 학위 취득도 가능한 학점은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학년 때는 여성복 위주의 패션디자인 기초 과정을, 3학년이 되면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란제리 전공을 교육합니다. 입학을 원하는 분은 6월부터 2월까지 5차례 진행되는 오픈캠퍼스 중 한 번 참석하신 후 전형 절차에 따라 지원하시면 됩니다. 오픈캠퍼스는 교과 과정 설명 및 학년별 작품집 전시, 재학생과 졸업생의 체험담 발표, 교실 탐방 및 진로체험수업 등으로 구성됩니다. 진로체험수업은 패션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을 대상으로, 패션디자이너의 세계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오픈캠퍼스 일시

1차: 2021년 6월 17일 (목) 오후 5시 (체험수업: 오후 3시 30분)
2차: 2021년 11월 19일 (금) 오후 5시 (체험수업: 오후 3시 30분)
3차: 2021년 12월 9일 (목) 오후 5시 (체험수업: 오후 3시 30분)
4차: 2022년 1월 25일 (화) 오후 5시 (체험수업: 오후 3시 30분)
5차: 2022년 2월 9일 (수) 오후 5시 (체험수업: 오후 3시 30분)

* 1, 2, 3, 4, 5차 중 1회만 참석해도 됨
* 사전 예약신청 필수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진로체험수업

패션 디자인 분야로의 적성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시간
패션 디자인을 경험하기 원하는 자 (전공, 연령, 성별 상관없음)
에스모드 서울 현직 교수진이 진행
매 회 선착순 25명 (예약 필수, 홈페이지 참조)

문의 : Tel. (02)511-7471 (내선 103)

ESMOD SEOUL PROMOTION 2020

에스모드 서울 제30회 졸업작품 발표회

제30회 졸업작품 발표회

에스모드 서울 제30회 졸업작품 발표회 성료

지난해 12월 5일, 〈에스모드 서울 제30회 졸업작품 발표회〉가 성료됐다.

예년과 달리 쇼룸 부스 형식의 전시회로 진행된 본 행사에는 에스모드 서울의 스틸리즘, 모델리즘 과정을 익힌 전공별 총 48명의 30회 예비 졸업생들의 작품 141점이 소개됐다. 특히 이번 졸업작품 발표회를 위해 제작된 각 학생들의 컬렉션 영상은, 신선하고 획기적인 작품 표현 방식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12월 3일과 4일에는, 패션업계 실무자 및 대표 인사들로 구성된 63명의 외부 심사위원들의 작품 심사가 이뤄졌다. 예비 졸업생들이 각 전시부스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하는 동시에 심사위원들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가는 열정적인 심사 광경이 연출됐다.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심사위원 대상'은 여성복 전공 홍유경 학생에게 돌아갔다.

홍유경 학생이 전개한 'De Rêve'는 현대무용의 장르 중 하나인 모던 클래식에서 영감을 얻어, 무용수들의 센슈얼 페미닌함을 강조한 코지 엘레강스 룩을 완성시켰다.

니트와 가죽을 결합한 소재개발로 유연하면서도 단단한 구조감을 표현했고 실키한 소재를 매치해 우아함을 강조했다. 화이트와 뉴트럴 컬러를 사용해 모던한 무드와 함께 은밀히 노출되는 깊게 파인 등과 다리 등, 신체 라인을 타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디자인들은 춤을 추는 듯한 무브먼트를 연상시킨다.

심사위원들은 "디자이너 자신과 가장 잘 어울리는 브랜드를 현실화한 학생인 것 같다."라며, "웨어러블 하면서도 모던하고 아름답다. 가장 고급스러운 실루엣과 소재를 사용했고, 가장 사고 싶은 옷을 만든 디자이너였다."는 호평을 남겼다.

이번 에스모드 서울 졸업작품 발표회는 신성통상, 프로모스틸, WGSN, 동동장학재단, YKK한국, 더울마크컴퍼니, 주한프랑스문화원,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차이킴,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에스모드서울재단에서 협찬했으며 수상 학생들을 위해 부상을 제공했다.

한편, 우수 졸업작품상 수상자 발표는 2020년 12월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은 2021년 2월 19일 제30회 에스모드 서울 졸업식에서 진행되었다.

〈2020년 제30회 에스모드 서울 졸업작품 발표회 수상자 〉

▶ 심사위원 대상: 홍유경(여성복)
▶ 금바늘상: 이지윤(여성복)
▶ 에스모드 인터내셔널상: 최호준(남성복)
▶ ZIOZIA상: 김진희(남성복)
▶ 동동 최우수아동복상: 신지은(아동복)
▶ 동동 우수아동복상: 박예진(아동복)
▶ 동동 남성복상: 김봉균(남성복)
▶ 동동 여성복상: 이재은(여성복)
▶ WGSN상: 조은혜(여성복)
▶ 프로모스틸상: 이다영(여성복), 오주영(남성복), 김신현(아동복)
▶ YKK한국상: 이민호(남성복)
▶ 울마크상: 최정연(여성복), 김준우(남성복)
▶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장상: 이윤희(여성복)
▶ 프랑스문화원장상: 김수현(여성복)
▶ 차이킴상: 이지윤(여성복)

ESMOD SEOUL PROMOTION 2020
FEMME

임혜근

김소양

심사위원 대상 홍유경

최화윤

올마크상 최정연

타켈 달자스

이민기

윤나라

김묘선

이희승

프로모스틸상 이다영

동동 여성복상 이재은

ESMOD SEOUL PROMOTION 2020 WOMEN'S WEAR / FEMME

FEMME

ESMOD SEOUL PROMOTION 2020

김주리

프랑스문화원장상 **김수현**

손희원

WGSN상 **조은혜**

이광재

김예은

홍지윤

금바늘상 / 차이킴상 **이지윤**

천시현

이소연

양세림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장상 **이윤희**

ESMOD SEOUL PROMOTION 2020 HOMME

ZIOZIA상 김진희

변지원

최수빈

이창현

김병선

동동 남성복상 김봉균

연창준

김상윤

정희태

오동근

이창현

프로모스틸상 **오주영**

YKK 한국상 **이민호**

양성우

에스모드 인터내셔널상 **최호준**

윤준호

HOMME

ESMOD SEOUL PROMOTION 2020

울마크상 **김준우**

정재학

프로모스틸상 김시현

나준엽

동동 최우수 아동복상 신지은

ESMOD SEOUL
PROMOTION 2020

ENFANT

ESMOD SEOUL PROMOTION 2020 KID'S WEAR / ENFANT

동동 우수 아동복상 배예진

서가원

영민영

ESMOD SEOUL PROMOTION 2020

제30회 졸업작품 심/사/평/

옷의 형태와 소재의 이해도가 뛰어난 학생들이 많아서 기뻤다.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명유석 회장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목된 의상과 더불어 신선한 개념의 영상물 제작이 눈에 띄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VOV 유효진 실장

지속가능성과 환경에 대한 고민들, 스포티한 접근이 눈에 띄었고 트렌드를 발빠르게 접근하는 것 같다.

한섬 정보실 임은경 실장

개성강한 디자인 표현, 현실적인 시대상을 반영하여 본인의 철학을 담아 디자인한 작품이었다.

더네이쳐홀딩스 NATIONAL GEOGRAPHIC 양정훈 부장

시대를 거스르는 감성과 트렌드한 무드의 조합이, 틀에 박힌 기성복과는 차별화되어 보였다.

BARREL 이상로 실장

소재에 대한 고민이 창의적인 포인트에서 착안되어 기능적인 부분까지 구현한 개발물들은 실제 마켓에서 활용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이라이트브랜즈 KODAK Apparel 하지연 실장

기성복에서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법을 창의적인 생각으로 도전해준 것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

이랜드월드 NEW BALANCE KIDS 문찬희 실장

컨셉, 기획, 제작, 마케팅까지의 관점으로 develop된 process가 인상적이었다.

ANDY & DEBB 윤원정 상무

다양한 그래픽과 텍스처 개발이 눈에 띄었다.
웨어러블 하면서도 각자의 아이덴터티를 보여준 컬렉션이었다.

YCH 윤춘호 CD

실루엣에 대한 연구와 스토리텔링이 좋았다. 전반적인 완성도와 소재개발이 훌륭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KUHO 최지영 팀장

옷 뿐만이 아니라 브랜딩과 소재개발 등 여러가지 면에서 너무 놀랍다.

ESteem 김소연 대표

Conceptual한 디자이너의 의도가 잘 설명된 전시회였다.
소재를 다루거나 직접 패턴을 제작한 수준이 높아, 일반적인 현업 디자이너 수준의 학생들인 것 같다.

신성통상 OLZEN 이준구 실장

환경을 보호하고, 동물과 공생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모두 생각한 이념이 칭찬할 만하다.

퍼스트어패럴 GUESS KIDS 김수련 실장

본인들의 브랜드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고민,
그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디자인한 것에 감동받았다.

서양네트웍스 김현화 이사

SPONSORSHIP

THE WOOLMARK COMPANY

CFDK 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KOREA

YKK®

WGSN BY ASCENTIAL

INSTITUT FRANÇAIS 주한 프랑스문화원

Tchai Kim 차이킴

d ong do ng

ZIOZIA

PROMOSTYL INTERNATIONAL STYLE AND TREND OFFICE

SOGNO FACTORY

ESMOD INTERNATIONAL Fashion Institutes & Universities Group

재단법인 에스모드서울재단

ESMOD INTERNATIONAL MEETING 2020

2020 에스모드 인터내셔널 디지털 국제회의

2020 에스모드 국제회의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3일까지 디지털 방식의 실시간 화상회의로 개최됐다.

에스모드 서울을 비롯한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등 전세계 13개국 20개 에스모드 분교의 대표와 교수진 200여명이 참가한 디지털 국제회의는 토론, 강연, 워크숍 등으로 구성됐다.

국제회의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각 에스모드 분교에서 실시했던 온라인 강의 및 디지털 교육에 대한 사례 및 경험 공유로, 전례 없는 상황으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전략적인 토의가 진행됐다.

3일간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참가자들은 에스모드 고유의 노하우와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혁신을 모색하는, 특히 디지털화되는 세계적인 변화를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기존의 오프라인 홍보 및 신입생 모집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체 에스모드 분교의 통합적인 디지털 행사 및 홍보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더불어 유명 모델리스트인 에스모드 도쿄의 Kakita 교수가 모델리즘(패턴디자인)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트 쿠튀르 테일러드 재킷 입체재단 온라인 워크숍과, 'Zero Waste Fashion Design'을 주제로 한 전문가(Mylene L'Orguilloux) 특강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오프라인 국제회의를 대체하여 처음으로 진행된 디지털 방식의 회의였지만, 전체 에스모드 인터내셔널의 적극적인 참여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디지털 국제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며 2020 에스모드 국제회의가 마무리됐다.

3학년 최호준, '제1회 MDF 패션 디자인 공모전' 수상

심사위원장 전미경 서울패션위크 총감독과 수상자 최호준

에스모드 서울 3학년 최호준 학생(남성복 전공)이, 2020년 7월 17일 오후 비영리 장학 재단법인 엠디재단(MD Foundation)이 주최한 '제1회 MDF 패션 디자인 공모전'의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내외 패션디자인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공모전은, 'Digital Nomad_지속가능하고 다양성을 포용한 패션'을 주제로 철학과 재능을 지닌 패션디자이너 양성·발굴을 위해 기획됐으며, 총 119명이 지원해 1~3차 심사를 모두 통과한 14명이 최종 선발됐다.

전미경 서울패션위크 총감독을 심사위원장으로 강훈 나자인 대표, 한경애 FnC코오롱 전무, 한현민 뮌 대표, 김민주 민주킴 대표 등 모두 8명의 심사위원이 엄정한 심사를 거쳐 디자이너 유망주를 선발했다. 2020년 4월 13일부터 95일간, 1차 포트폴리오 심사부터 3차 즉석 메이킹 심사까지 다양한 미션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되었다.

2018년 에스모드 서울에 편입학해 올해 2월 졸업한 최호준 학생은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이러한 기회를 얻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호준 학생은 국내 패션학교 장학금 지원대상 6명에 선발되어, 엠디재단의 장학생으로서 500만원의 등록금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한편, 엠디재단은 한국 패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2020년에 설립되었으며, 패션 공모전을 개최하여 잠재력 있는 학생들이 세계적인 패션 무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ISKO I-SKOOL DENIM AWARDS

에스모드 서울 재학생 2인, '제7회 I-SKOOL DENIM AWARDS' 수상

'BEST OVERALL LOOK상' 수상자 (3학년 이다영)

에스모드 서울이 2020년 7월 22일(이탈리아 현지시간 기준 오후 5시), 국제 패션콘테스트인 I-SKOOL DENIM AWARDS(아이스쿨 데님 어워즈)에서 총 2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안았다.

수상의 주인공은 3학년 여성복 전공의 이다영, 최정연 학생. 7개의 수상 부문 중 이다영 학생은 'BEST OVERALL LOOK 상'을, 최정연 학생은 'CADICA PERICOLO AWARD 상'을 수상했다.

I-SKOOL DENIM AWARDS는 매년 데님을 소재로 전세계 패션스쿨 학생들이 경합을 벌이는 콘테스트로, 'North, East, South, West: connected by one planet'이라는 주제로 환경을 고려한 창의적인 데님 작품들이 선보여졌다.

본 콘테스트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미국,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영국, 중국, 일본 등의 패션스쿨 학생 20명이 최종 결선에 올랐으며, 에스모드 서울은 콘테스트에 참여한 15개의 패션스쿨 중 유일하게 양성우, 이다영, 최정연 총 3명의 최종 결선 진출자와 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수상자 이다영 학생은 'An Existential Shadow'라는 제목으로, 버려진 헌 옷을 활용해 압축한 형태를 프린팅하여 옷의 형태가 변형된 느낌을 주었다. 원단에 포켓 프린팅을 찍어내어 히든 포켓으로 봉제실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책임 있는 디자인을 선보였고, 볼륨 연구를 통해 스타일링 또한 창의적으로 표현해냈다.

또 한 명의 수상자 최정연 학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나라 복식 '한복'을 통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Newniform'이라는 타이틀의 컬렉션을 선보였다. 또한, 이탈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부자재 및 패키지 전문회사 Cadica Group(카디카 그룹)의 라벨링 디자인 프로젝트에도 참가, 족자, 마패와 같은 한국 전통 소품을 재해석한 친환경 컨셉의 세련된 라벨 컬렉션을 선보여 'CADICA PERICOLO AWARD 상'을 수상했다. 최정연 학생의 라벨 컬렉션은 2021년 Cadica 신제품 컬렉션 스페셜 에디션에 포함되어 Cadica Group의 고객사인 전세계 유명 패션브랜드에 제공될 예정이다.

'Newniform' (3학년 최정연)

미래의 ESMODIAN 후배들에게

'에스모디안의 삶,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껴요'

정규과정 1학년 박유나

저는 어릴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아 옷이나 액세서리를 만들고 꾸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패션을 배우고 싶었고, 부모님의 권유로 패션 디자인학과가 있는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대학에 대해 고민하다가 패션스쿨의 시스템이 대학교의 수업 시스템보다 잘 되어있고 패션 관련 기술을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에스모드 서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제도 많고 힘들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었던 저는 다른 패션스쿨을 선택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배우다 보니 많은 허점이 보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제게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망설임 없이 바로 에스모드 서울로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에스모드 서울이 과제가 많고 힘들다는 것은 단기간에 그만큼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얻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현재 에스모드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타 패션스쿨을 다녀 본 경험, 그리고 대학 패션 디자인과를 나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에스모드에서 받은 패션 교육이 다른 곳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장점인지를 조금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에스모드 서울의 교수님들은 모두 전임교수라는 점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에스모드 교육법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로,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했던 부분,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에서 쉽게 나아갈 방법들을 확실히 잘 짚어 주십니다. 또한 늘 교내에 계시기 때문에 찾아가 물어보고 답을 얻기에도 좋고, 언제든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은 점에 대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알려주신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수업방식입니다. 에스모드 서울은 1,2,3학년으로 과정이 나누어져 있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배우고 있어서 수업을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또한,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다른 패션스쿨과 달리 패턴디자인인 모델리즘과, 패션디자인인 스틸리즘으로 디자인 교육과정을 크게 구분하는데 이 두 과목 안에서 세부적인 과목들이 나뉘고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같이 연관된 수업을 듣기 때문에 이해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셋째, 실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 답게 작업지시서의 패션 일러스트를 보고 옷의 볼륨, 디테일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보거나,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나의 컬렉션을 컨셉이나 패션 무드를 제작해 실제로 디자인을 창작해보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스킬은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들까지 쉽게 배우고 터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나만의 수업일지와 수업 내용들을 그때그때마다 파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고등학교, 타 패션스쿨, 다른 어떤 대학에서도 수업일지와 수업에서 해왔던 모든 자료, 과제를 파일로 만들어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저 스스로 파일을 만들며 힘든 경험이 있었는데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과거 선배들의 잘 정리된 예시 파일들도 보여주고, 학생마다 정리한 것을 확인 및 수정해주어서 저만의 모든 과정을 파일 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1학년에 불과하지만, 에스모드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자부심과 뿌듯함이 매우 큽니다. 그만큼 에스모드 서울의 체계적인 시스템은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준 곳이기에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노력하면 못 이룰 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값진 에스모드 서울에서의 시간'

인텐시브과정 정지원

저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와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해 단순하게 화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주말마다 다닌 도서관에서 패션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점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 디자이너들을 화려하게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보았던 TV에서 자신의 생각을 옷으로 표현하고 소비자에게 어필하기까지 매우 치열하게 살아가는 디자이너의 모습에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패션디자이너를 꿈꾸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에스모드 서울에 오기 전 타 패션학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실무를 중심으로 배우는 것에는 만족을 했지만 패션디자이너로서의 자질을 갖추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 1년 동안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며 유학과 편입을 고민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파리 에스모드의 분교인 에스모드 서울을 추천해 주셔서 홈페이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배워야하나 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정규과정을 지원했다가 상담을 통해서 인텐시브 과정을 해봐도 괜찮겠다고 추천 해주셔서 용기를 갖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전, 저는 에스모드는 졸업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인텐시브 과정은 정말 더 힘들다는 소리를 들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학해보니 스틸리즘과 모델리즘으로 꽉 찬 커리큘럼 덕분에 걱정할 새도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종일 두 과목의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남은 과제를 하고 나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가버려 눈 감자마자 잠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마다 생기는 다양한 제 작품집을 보면서 그동안 정말 많이 배웠구나 라는 생각에 뿌듯해집니다.

인텐시브 과정에는 에스모드 입학 전에 다양한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의 경험이 달라서인지 대화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아이디어를 얻는 발상의 폭도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 연령대나 경험이 다른 언니, 오빠 그리고 친구들의 작업과정에서 좋은 장점은 본받으려고 하고, 또 평소에 안 좋았던 저의 습관들도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한 벌 한 벌의 작업물들이 늘어날 때마다 그 옷 한 벌을 만들기까지 할애되는 많은 시간을 알기에 더욱 더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2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3학년으로 진급해서 여성복을 전공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약 8개월의 시간이 거의 2년처럼 느껴질 만큼 에스모드에서의 하루하루는 참 값지게 느껴집니다. 인텐시브 과정이라고 해서 꼭 단기간이라는 짧은 과정에만 매력을 느끼기 보다는 그만큼 얼마나 집중해서 작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매력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모드 서울 졸업생, 그들에게 묻는다'

2020년 에스모드 서울을 졸업하고, 국내외 패션계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두 졸업생의 인터뷰

29기 로라 로사 부이스(Laura Rosa Buijs) 파리 생 로랑(Saint Laurent) 인턴

Q. 패션디자인을 공부하게 된 계기와, 에스모드 서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하루를 산다. 우리는 항상 일반적이고 익숙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런 삶을 크리에이티브 하지 않고 재미없는 인생이라고 배웠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나에게 큰 도전이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영감을 받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모드 서울은 나에게 큰 기회를 주었다. 에스모드에서 만난 이들은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것은 내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Q. 에스모드 서울에서의 생활은 어땠나?

에스모드 서울에서 배운 것이 많다. 졸업을 하고 일을 하니까 내가 정말 능력 있는 디자이너가 되었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이런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정말 많이 힘들었다. 어느 순간 힘내라는 말이 사치처럼 느껴지고 원하는 것들이 너무 멀리 있다고 느껴져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다. 교수님들과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포기하고 지금의 일을 하고 있지 못했을 것 같다. 에스모드의 가장 좋은 점은, 학교가 터프하고 힘들어도 학생들을 잡아주는 교수님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편하고 안전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 학교 다니던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정말 행복했다고 느낀다.

Q. 에스모드 서울에서의 3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는다면?

제일 중요한 순간을 꼽는다면 졸업쇼가 아닐까 싶다. 일년동안 고생하면서 나타낸 나의 아이디어들, 나의 컬렉션, 설명도 할 수 없는 기분이다. 내가 1학년이었을 때 이런 걸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여러분도 상상 못하겠지만 다 가능한 일이다.

Q. 졸업 후, 취업을 통해 본인이 느끼는 에스모드 교육의 장점이 있다면?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것이 매우 두려웠다. 하지만 디자이너에게 새로운 것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새로운 일이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실패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나의 한계를 테스트하고 몰랐던 힘을 찾는 것을 에스모드를 다니면서 알았고,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29기 박영원 프라이노크(FREIKNOCK), 프라이(FREI) MD

Q. 에스모드 서울의 수업은 어땠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에스모드의 교과 과정은 크게 스틸리즘과 모델리즘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된다. 이 두 과목을 병행하면서 모델리즘적인 사고를 갖춘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에스모드 서울 교육과정의 가장 큰 장점이다. 3년 동안 계속해서 강도가 높아지는 수업을 들으면서 언젠가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런 커리큘럼 덕분에 백지 상태로 시작했던 내가 어느새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컬렉션을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만의 컬렉션이 완성되어 무대에서 내 옷을 입고 워킹하는 모델들을 보는 순간, 그 동안의 힘든 순간들이 다 잊혀질 만큼 가슴 벅차고 평생 잊지 못 할 경험을 했던 순간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

Q. 졸업 후 느끼는 에스모드 서울만의 장점이 있다면?

에스모드 서울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학생들은 디자인 관련 지식과 더불어 패션마케팅, 패션 소재, 복식사 등의 교양 과목을 통해 패션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체계적이고 응축적으로 경험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패션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렇게 축적된 전문 지식은 꼭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MD로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소재에 대한 이해도부터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안목,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다양한 툴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졸업을 하게 되어 실무에서도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한 것 같다.

Q. 패션디자이너가 아닌 MD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해보니 어떤가?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기도 했고 평소에도 비즈니스 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에스모드에서 얻은 패션 전문 지식에 비즈니스 적인 면을 접목시킨 업무를 하면 내가 더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MD로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 현재는 CS 업무부터 MD 업무까지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실제 소비자들과 가깝게 소통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브랜드 운영과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을 가까이서 보고 배울 수 있어 값진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에스모드 입학을 희망하는 예비 후배들에게, 3년간 실제로 공부를 해 본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에스모드 서울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한계에 도전하며 조금씩 성장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힘든 만큼 패션 디자인 공부가 더 재미있어졌고 패션을 더 사랑하게 됐다. 패션에 대한 열정과 끈기가 있다면 여러분들도 에스모드 서울에서 정말 값진 3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에스모드서울재단 김동건 이사장, 배우 정혜선, 유지인, 금보라
'제10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수상

2020년 11월 6일,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이사장 안성기)이 주최한 '제10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시상식에서 에스모드서울재단 김동건 이사장을 비롯한, 정혜선, 유지인, 금보라 배우가 선행부문인 '굿피플예술인상'을 공동 수상했다.

굿피플예술인상은 기부, 봉사활동 등 선행으로 귀감이 되어온 예술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1999년부터 지난 20년간 에스모드 서울의 패션인재 육성에 대한 신념과 노력에 뜻을 같이하며, 한국 패션산업의 발전에 보이지 않는 공덕을 남긴 네 명에게 돌아갔다.

1999년 김동건 이사장이 기부한 '자영장학금'을 시작으로, 정혜선 배우가 기부한 '혜선장학금', 유지인 배우가 기부한 '지인장학금', 금보라 배우가 기부한 '보라장학금' 등의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2020년까지 21년간 총 146명으로, 이들은 현재 국내외 유명 패션기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동건 이사장은 "영화 같은 일이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고, 정혜선 배우는 "이런 상을 받기에는 부끄러움이 많다. 남은 인생 더 좋은 일 많이 하라고 주시는 걸로 알고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라 배우는 "작은 여자한테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열심히 더 좋은 일 하겠다."고 전했다. 유지인 배우는 촬영일정으로 불참해 에스모드 서울의 고은경 대표가 대리 수상했다.

에스모드서울재단 김동건 이사장과 정혜선, 유지인, 금보라 배우에게 2천만의 시상금과 대리석 상패가 주어졌고, 수상자들은 상금으로 받은 2천만원을 에스모드서울재단에 다시 기부해 패션산업 인재양성에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줬다.

한편, 1999년에 설립된 에스모드서울재단은 패션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럭키마르쉐(Lucky Marché) 총괄 디렉터 장정애 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FnC 부문 럭키슈에뜨(Lucky Chouette)의 디렉터인 장정애 동문(7기)이, 2020년 8월 론칭한 럭키마르쉐(Lucky Marché)의 총괄 디렉터를 함께 맡았다.

럭키마르쉐는 럭키슈에뜨의 헤리티지를 담은 유니섹스 영캐주얼 브랜드로, 2535 MZ세대를 겨냥해 남녀가 함께 입을 수 있는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선보였다. 독창적인 컬러와 그래픽 디테일로 럭키마르쉐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을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마켓에서 행운을 사다'라는 뜻을 가진 럭키마르쉐는, 'Keep on Smiling, You are Amazing, Think Happy' 등 3가지 슬로건으로 긍정의 메시지를 담은 스토리텔링을 풀어나간다.

첫 컬렉션으로 오버핏 맥코트, 아노락 점퍼, 티셔츠, 팬츠, 진, 버킷햇, 스니커즈, 백 등으로 총 51개의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특히 오버사이즈 핏의 아우터, 셋업 코디가 가능한 재킷과 조거 팬츠, 볼륨 실루엣 티셔츠 등이 주를 이루며 컬러풀한 레터링과 테이프 디테일로 포인트를 줬다.

온라인 중심으로 전개되는 럭키마르쉐의 오프라인 매장은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있다. 최근 360도 VR을 활용해 럭키마르쉐 매장을 그대로 구현한 '럭키 고 스마일 마켓(LUCKY GO SMILE MARKET)'을 함께 선보였으며, 이는 공식사이트 코오롱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유주형, 이인형 동문의 프라이노크(FREIKNOCK),
코오롱스포츠와 협업 컬렉션 출시

에스모드 서울 유주형, 이인형 동문(22기)의 컨템포러리 유니섹스 캐주얼 브랜드 프라이노크(FREIKNOCK)가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이 전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와 컬래버레이션 컬렉션 'KOLON SPORTS X FREIKNOCK'을 선보였다.

'시티 서바이벌'을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뉴 노멀의 시대상을 흥미로운 스토리로 풀어내었고, 항균 소재를 사용하는 등 상품 자체에도 기능을 적용했다. 한정판으로 출시된 협업 제품은 패딩부터 베스트까지 8개 스타일로 구성됐으며, 코오롱스포츠 기존 상품에 스토리와 기능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코오롱스포츠의 스테디셀러로 꼽히는 리버서블 경량 패딩 '키퍼 360'의 경우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다운점퍼, 베스트로 변신했다. 협업 제품에서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한쪽 면에 AGION(에이지온) 후가공을 적용, 항균 효과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프라이노크와 코오롱스포츠는 컬래버레이션을 기념하여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코오롱스포츠 한남 플래그십 지하 1층에서 상품을 특별 전시, 판매했다. 두 동문을 비롯해 함께 협업을 진행한 코오롱스포츠의 김명진 실장 또한 에스모드 서울 동문으로, 전시에는 에스모드 서울의 교수진 및 교직원, 재학생들이 초청되었다.

정욱준 동문의 준지(JUUN.J),
2021FW 파리 컬렉션 '페르소나' 온택트로 선보여

에스모드 서울 2기 정욱준 동문의 삼성물산 패션부문 글로벌 브랜드 준지(JUUN.J)가 올해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디지털로 진행된 파리 '21년 F/W 시즌 남성 패션위크'에 참가했다. 22일 금요일 오후 8시, 파리의상협회 공식 플랫폼과 브랜드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 크리에이티브 영상과 화보로 구성된 디지털 룩북을 공개했다.

준지는 21년 F/W 시즌 컬렉션 테마를 '페르소나(PERSONA)'로 잡았다. 특히 지난 시즌에 이어서 '소프트 밀리터리'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의 스포티하고 스트리트한 무드를 재해석했다. 준지의 대표 아이템인 MA1, 피코트, 테일러드 재킷, 오버사이즈 아우터를 중심으로, 준지의 시그니처 컬러인 블랙, 화이트, 그레이, 네이비 뿐 아니라 브라운, 블루, 골드를 시즌 포인트 컬러로 보여줬다.

또 여성복은 정교한 테일러링을 바탕으로 한 재킷과 슈트, 플리츠 디자인이 가미된 스커트와 원피스, 니트 소재에 풍성한 볼륨감과 페미닌한 실루엣을 강조한 원피스 등이 주목된다. 여성 스커트는 1950년대에서 영감을 받아, 여성스럽고 클래식한 스커트를 남성적인 소재와 실루엣의 상의와 매치하거나 1990년대의 스포츠파카 혹은 박시한 가죽 재킷들과 대비시켜 실루엣의 대조를 극명하게 표현했다.

준지는 샤프하고 강한 테일러링을 극대화시켜 보여주고자 펠티드 울과 가죽 소재를 선택했다. 또 유연한 나일론 소재 뿐만 아니라 투박한 나일론 소재까지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다.

더불어 준지는 '페르소나'를 패션으로 세련되게 표현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에 힘을 줬다. 지난 시즌에 이어 선보인 크리에이티브 영상은 보다 더 영화적인 기법으로 '옷이란 사람의 몸에 짓는 건축물'이라는 디자이너의 가치관을 담았다.

게다가 건축물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소인 계단을 런웨이 삼아 21개 스타일의 컬렉션 피스를 보여줬다. 서울국제갤러리, 청주동부창고비엔날레, 대전근현대사전시관, 한남대학교 등 여러 건물들의 계단에서 촬영됐다.

준지의 크리에이티브디렉터(CD) 정욱준 동문은 "컬렉션은 패션 디자이너에게 있어 가장 완벽한 페르소나라고 말할 수 있다" 라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담긴 아이템들의 변주 뿐 아니라 포토그래퍼, 뮤지션, 모델, 크루 등 모든 관계자들이 영감의 원천이고 준지 그 자체이며, 준지의 페르소나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정욱준 동문은 '2020년 한국디자이너패션어워즈'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최우수 디자이너상'을 수상했다. 2019년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데 이어 장관상까지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다.

제30회 졸업식

2021년 2월 19일, 에스모드 서울 제30회 졸업식이 개최됐다. 올해는 여성복 전공 24명, 남성복 전공 18명, 아동복 전공 6명 등 총 48명의 졸업생이 에스모드 서울의 패션디자인 과정을 모두 마쳤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우수 졸업작품에 대한 15개 부문의 시상식도 이날 같이 열렸다. 이어서, 3년간의 학업성적, 졸업작품, 교내 활동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되는 각 전공별 최우수상과 대상, 공로상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30기 졸업 대상은 여성복 전공 최정연 학생에게 수여되었다. 수상한 최정연 학생에게는 에스모드 서울 장학재단에서 수여하는 서울-파리 왕복항공권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에스모드 서울 홍인수 교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에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하이브리드로 진행됐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더 성실하게 꺾이지 않는 의지와 열정으로 졸업작품을 선보인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다. 포기하지 않고 학업을 수행하고, 졸업작품과 심사, 전시까지 멋지게 마무리한 여러분은 코로나 환란의 시기를 이겨낸 승리자다. 힘들었던 경험들은 각자가 사회에 나아가 싸워야 할 때, 넘어야 할 산이 있을 때 숨겨져 있는 무기가 될 것이고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될거다. 자신감을 갖고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로 도전해서, 에스모드 서울을 빛내주길 바란다."라고 축사했다.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예방 조치로 인해, 온, 오프라인 수업이 선별적으로 진행된 어려운 시기였지만, 에스모드 서울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의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반한 양방향 수업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뤄졌다. 실습 작업에 대한 1:1 피드백이 함께 진행됐고, 학생과 교수진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실습 위주의 교과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제30회 졸업식 수상자 명단

▶대상: 최정연
▶여성복 최우수상: 김수현
▶남성복 최우수상: 최수빈
▶아동복 최우수상: 신지은
▶공로상: 김봉균, 김준우, 서가원, 양성우, 이다영, 이민기, 최수빈, 최정연, 최호준

〈2020학년도 에스모드 서울 장학생〉

성적 최우수 장학생
박윤정 장학생
에스모드 서울 이사장 장학생
에스모드 서울 재단 장학생

일정 장학생
이건 장학생
유순덕 장학생
혜선 장학생
지인 장학생
보라 장학생
자영 장학생
동동 장학생
율산 장학생
재정 장학생
한영 장학생
마리아 장학생
니꼴라 장학생
루비나 장학생
지가 장학생
교직원 장학생
서포터즈 장학생

김봉균
송이경, 최정연
김수현, 문성훈, 서종민, 타헬달자스
김승재, 오유림, 이민기, 이승헌, 이재은, 이희승, 정재학, 조민규
정주원, 조은혜
김진희, 이재은
김봉균, 김준우
엄창용, 최가을
김나은, 송이경
이수지, 최나현
박현진, 황띠탄로안
김신현, 나준엽, 박예진, 신지은
이민기, 이지윤
조준환, 최수빈
김혜림, 이민호
최성우
이다영
오지연, 이진주
설재진
김형준, 박현진, 전서연, 조은혜
이진주, 최화윤

WGSN에서 발표한 2021년 10대 주요 트렌드

그림 속에 꼭꼭 숨은 트렌드를 찾아보세요!

WGSN은 소비자의 사고, 기분,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칠 변화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WGSN은 미래의 동향을 예측함으로써 세계 최대 유통업체, 브랜드 및 제조업체가 확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WGSN 서비스가 궁금하다면
WGSN Korea 02-2055-3540 혹은
카카오톡에서 WGSN을 검색해 문의주세요.

WGSN이 예측한 2021년과 그 이후의 10대 주요 트렌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QR 코드로 바로 확인해보세요.

WGSN